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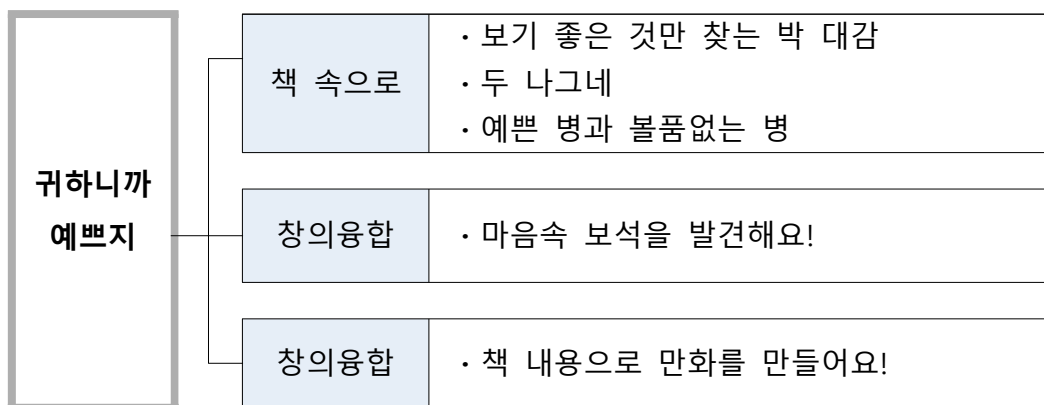
귀하니까 예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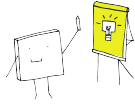
- * 글 : 강정연
- * 그림 : 한상언
- * 펴낸곳 : 단비어린이
- * 정가 : 13,500원
- * 분량 : 48쪽

· 책 소개

봉오리 마을 박 대감은 사람뿐만 아니라 음식도 그릇도 세상의 모든 걸 걸모습으로 판단했어요. 그런데 그런 박 대감의 눈에 하나뿐인 외동딸이 너무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쁘다던데, 박 대감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박 대감은 딸이 너무 못생겨서 시집도 못 가면 어쩌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박 대감 집에 하룻밤 묵은 선비가 큰 신세를 졌다면서, 예쁜 병 하나와 낡고 불품없는 병 하나를 꺼낸 다음, 박 대감에게 한 병만 고르라고 했어요. 그중 한 병에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해 주는 묘약이 들어 있고, 다른 한 병에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하는 독약이 들어 있다고 했지요. 박 대감은 한 치의 고민도 없이 예쁜 병을 골랐어요. 이 묘약으로 외동딸을 이쁘게 변화시키려고 말이에요. 박 대감의 바람대로 외동딸은 변신에 성공할까요?

· 주요 독후활동





독서 전

책 미리 보기 : 표지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귀하니까 예쁘지》의 책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등을 써 보세요.

예) 표지에 그려진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하는 거 같아.

예) 둘이 닮은 거 같은데?

예) 선비의 옷이랑 갓은 많이 낡아 보여. 가난한 사람일까?

2. 《귀하니까 예쁘지》 뒤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예뻐서 귀한 것이 아니라
귀해서 예쁜 거라네!

봉오리 마을 박 대감은
사람뿐만 아니라 음식도 그릇도
세상 모든 것을 그저 보기에 좋은 것만 좋아라 했어.
그런 박 대감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못생겨서 시집도 못 갈 거 같은 딸이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나 보인다는 거야.
박 대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분명해.
뭔 일인지 어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세.

1) 봉오리 마을 박 대감은 어떤 걸 좋아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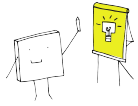
⇒ 보기에 좋은 것.

2) 박 대감은 왜 딸이 시집도 못 갈 거라고 생각했나요?

⇒ 너무 못생겨서 시집도 못 갈 거 같다고 생각했다.

3) 박 대감은 왜 갑자기 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나 보였을까요?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 예시 답안) 눈병이 나서 약을 먹었는데, 못생긴 것들이 다 예뻐 보이기 시작했다.



독서 후

1. 《귀하니까 예쁘지》를 읽고 몰랐던 단어를 적어 보세요. 그 단어의 뜻을 찾아서 적고,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1)

단어 : 야트막하다

단어의 뜻 : 조금 얇은 듯하다.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야트막하게 돌담을 쌓아 올렸다.

2)

단어 : 윤기

단어의 뜻 : 반질반질하고 매끄러운 기운.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머리에서 윤기가 나네?

3)

단어 : 성품

단어의 뜻 :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성품이 까다로운 사람이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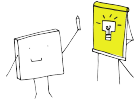
4)

단어 : 헛간

단어의 뜻 : 막 쓰는 물건을 쌓아 두는 광.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오랫동안 안 쓴 방은 헛간이나 다름없었다.



독서 후

1. 《귀하니까 예쁘지》에 나오는 단어와 물건을 바르게 연결해 보세요.

① 상투

㉠

② 요강

㉡

③ 강정

㉢

④ 엽전

㉣

⑤ 버선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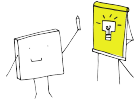


㉣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① 보기 좋은 것만 찾는 박 대감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박 대감이 얼마만큼 보기 좋은 것만 찾느냐면 말이야.

일꾼들 들일 때도 일손씨는 안 보고,

“삼들이 놈 인물이 흰한 게 괜찮더구나. 오늘부터 내 집에서 일하라고 해라. 땡콩이 그 녀석은 어찌 그리 못났누? 어서 짐 싸서 내 집에서 백 리 떨어진 곳에 숨어 살라고 해라!” 이런단 말이지.

먹을 것을 먹을 때도 맛은 안 보고,

“ ”

이런단 말이지.

일이 이쯤 되니 박 대감네 일꾼들은 해야 할 일은 없고, 옷이며 머리며 모양내기에만 정신이 팔려 바쁠 수밖에.

(나) 하나하나 뜯어보면 시커먼 눈썹은 박 대감을 닮았고,

쭙 찢진 눈은 외할미를 닮았고,

하늘을 향해 벌름거리는 콧구멍은 할아버지를 닮았고,

홀랑 뒤집어진 두툼한 입술은 작은 아버지를 닮았네 그려.

그래도 그나마 제 어미를 닮아 초롱초롱한 눈빛 하나는 봐줄 만해.

도 제 자식은 예쁘다고 한다던데 박 대감은 그렇지도 않은가 봐.

1. 보기 좋은 것만 찾는 박 대감은 먹을 것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가)의 에 들어갈 말을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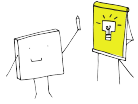
⇒ 예시 답안) 이 콧감은 너무 못생겼구나. 예쁜 감으로 가져 오너라!

2. (나)의 에 들어갈 동물은 누구일까요? 속담의 의미를 생각해서 적어 보세요.

⇒ 고슴도치

3. (나)의 묘사대로 금이의 얼굴을 그려 보세요.

⇒ 답안 생략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두 나그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내 성격이 워낙 고지식해서 낯선 사람을 집 안에 잘 들이지 않네. 하지만 사정이 딱해 보이니 딱 한 명만 묵어가게 해 주겠네.”

그러자 인물 좋은 사람이 나서서 간곡히 부탁했어.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함께 나고 자란 절친한 친구입니다. 둘이 함께 과거 시험을 보러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 한 명만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왕 마음 베풀어 주시는 거 둘이 같이 묵어가게 해 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자네는 인물만 잘난 게 아니라 마음도 잘났군. 그렇다면 다른 친구는 헛간에서 자게 하거나. 더는 안 되네.

“정말 고맙습니다. 이 밤중에 헛간이면 어떻고 뒷간이면 어떻습니까?”

인물 못난 사람이 넙죽 인사를 하자 박대감은 얼굴을 찡그리며 두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나) 인물 좋은 사람이 허리춤에서 작은 병 두 개를 꺼내 박 대감 앞으로 내밀었어. 하나는 누구라도 탐낼 만큼 알록달록 예쁘게 잘 꾸며진 병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무 무늬도 없는 아주 낡고 볼품없는 병이었지.

“대감님, 어쨌거나 어제 하룻밤 큰 신세를 졌습니다. 대감께서 병 하나를 고르시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한 병에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해 주는 묘약이 들어 있고, 다른 한 병에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하는 독약이 들어 있습니다.”

박 대감은 ‘가장 소중한 것’이란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 어찌면 못생긴 딸이 먹으면 곱디고운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 싶었지. 박 대감에게 가장 소중한 건 화려한 ‘겉모습’이니까.

설사 자칫 독약을 고른다 해도 이미 형편없는 인물인데 뭐 더 나빠질 게 있을까 싶기도 했고 말이야.

1. 박 대감이 한 사람은 집에 들어와도 된다고 하고, 한 사람은 안 된다고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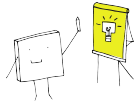
⇒ 인물이 잘난 사람만 집에 들이고 싶었기 때문에.

2. (가)에서 내가 인물이 못난 사내였다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나요? 왜 그런 기분이 들었나요?

⇒ 예시 답안) 외모가 못나고 싶어서 못난 게 아닌데, 차별을 당해서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다.

3. 내가 박 대감이라면 어떤 병을 골랐을 건가요? 그 병을 고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예시 답안) 예쁜 병을 골랐을 것 같다. 나도 예쁜 병에 묘약이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독서 후 책 속으로_ ③ 예쁜 병과 볼품없는 병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이 일을 어찌면 종단 말이나. 그게 묘약이 아니고 독약이었나 보구나. 내가 미쳤지. 독약을 내 소중한 딸에게 덥석 먹게 했던 말이나! 내가 미친 게 틀림없다!”
그렇게 예쁘게만 보이던 병이 어찌나 징그럽고도 소름끼치던지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잘근잘근 밟아 댔지.

(나) “그때 그 사람이 내게 선물로 준 것이지요. 제 생각이 맞는다면 이 병 안에 들어 있는 약이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해 준다는 바로 그 묘약이지 싶습니다. 어서 따님에게 먹여 보시지요.”

“그래그래 어서 내 딸에게 가 보세나.”

박 대감은 인물 못난 사람의 소맷자락을 끌고 딸이 누워 있는 안채로 서둘러 들어갔지.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야. 슬쩍슬쩍 뒤돌아 인물 못난 사람을 보았는데, 그때마다 ‘사람 참 괜찮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1. 두 병에는 각각 어떤 약이 들어 있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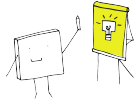
병	어떤 약이 들어 있었나요?
누구라도 탐낼 만큼 예쁜 병	⇒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하는 독약
아무 무늬도 없는 낡고 볼품없는 병	⇒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해 주는 묘약

2. 병에는 박 대감의 생각과 다른 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각각 병의 정체를 알게 된 박 대감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 예시 답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겉모습보다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가 더 중요하다.

3. 인물 못난 사람의 성격은 어떤가요? (나)의 밑줄 친 부분에서 인물 못난 사람의 장점을 찾아 적어 보세요.

⇒ 예시 답안) 좋은 약이면 자기가 먹었을 수도 있는데 선뜻 양보를 했다. 아픈 사람을 도우려는 선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



독서 후 창의융합_ 마음속 보석을 발견해요!

“허허허! 예뻐서 귀한 것이 아니라, 귀해서 예쁘다는 걸 내 이제야 알았네.”

못난 사람이건, 잘난 사람이건, 늙은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아픈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다들 저마다 소중한 사람들이 흥에 겨워 웃고 떠들고 춤추고, 잔치가 한창이야.

1. 사람은 누구나 귀해요. 그리고 겉모습보다 마음속이 더 중요하지요. 나의 마음속에는 어떤 장점들이 숨어 있나요? 아래 장점을 나타내는 단어에서 나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왜 그 장점을 적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감사	끈기	용기	정직
책임	경청	협동	친절
너그러움	도움	스스로	예의
존중	질서	협동	정돈

◆ 나의 장점 :

◆ 왜 이 장점을 적었나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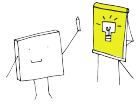
⇒ 예시 답안) 용기, 친절 : 새로 전학 온 친구에게 용기 있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또 친절하게 학급을 소개해 주었다.

2. 친구 중 한 명을 정해 그 친구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왜 그 장점을 적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 친구의 장점 :

◆ 왜 이 장점을 적었나요? :

⇒ 예시 답안) 협동, 경청 : 수정이는 모둠 모임을 할 때 늘 다른 친구의 말을 잘 듣는다. 모듬을 잘 도와 협동하기 때문에 늘 수정이와 함께 있으면 즐겁다.



독서 후 창의융합_ 책 내용으로 만화를 만들어요!

※ 책의 줄거리를 네 컷 만화로 만들어 보세요.

①	②
③	④

⇒ 가이드) 책 줄거리를 먼저 생각해 본 뒤에, 중요한 장면을 이어지게 그리도록 지도해 주세요.